



끝까지 지켜낸 믿음, 우리가 이어갑니다.

# 항일운동 및 신사참배거부 교단기념 주일

2026. 5. 10 주일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  
THE KOREA BAPTIST CONVENTION

# 항일운동 및 신사참배거부 교단기념 주일

[예배자료]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  
THE KOREA BAPTIST CONVENTION

## 예배 참고 자료

### ■ 기원과 목적

우리 침례교단은 일제의 탄압으로 많은 교단 지도자들이 순교하였고, 교단폐쇄령(1944년 5월 10일)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신사참배의 강요를 거부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숭고한 믿음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제105차 정기총회(2015. 9. 22)**에서 교단기념일로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제115차 총회는 제115-4차 임원회의에서 전국교회가 5월 10일을 "항일운동 및 신사참배거부 기념 주일"로 기념하며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 ■ 본문 예시

#### 1. 다니엘 3:16-18

16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17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 2. 마태복음 10:28

28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 3. 히브리서 11:36-38

36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37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8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 4. 출애굽기 20:3-5

3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4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5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예배순서

목상기도	다같이
찬 송	<p>[예시]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p> <p>(1)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라</p> <p>(2)내 힘만의 지할때는 패 할수 밖에 없도다 힘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 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p> <p>(3)이땅에 마귀들 꿰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대도 진리를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 아멘</p>
기 도	
성경봉독	<p>[예시] 출애굽기 20:3-5</p> <p>3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4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5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p>
특 송	
설 교	[예시]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축 도	

## [ 설교예시자료 ① ]

제목 : 죽음을 넘어선 신앙의 정절

본문 : 다니엘 3장 17~18절

### 서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가 지정한 '항일운동 및 신사참배거부 교단기념 주일'입니다. 80여 년 전, 이 땅의 교회들이 일제의 강압에 못 이겨 신사 앞에 머리를 숙일 때, 끝까지 무릎 꿇지 않고 신앙의 정조를 지켰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침례교회는 1944년, 신사참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교단이 강제 해산당하고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는 유례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토록 모진 고문과 교단 폐쇄라는 아픔 속에서도 신앙을 굽히지 않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 속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그들이 가졌던 '죽음을 넘어선 신앙의 정절'이 오늘 우리 침례교회의 영적 동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본론 1: 타협할 수 없는 유일한 왕, 하나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거대한 금 신상을 세우고 모든 이에게 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절하지 않는 자는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는 서슬 퍼런 위협도 함께였습니다. 당시 일제가 강요했던 신사참배 역시 이와 같았습니다. 일본 천황을 신격화하여 그 앞에 절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영혼을 지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배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든, 우리 삶의 진정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제1계명은 목숨보다 무거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 신상 앞에 서기를 거부했던 것처럼, 침례교의 선배들은 일제의 총칼 앞에서 "우리에게 왕은 오직 주님뿐입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애국 운동을 넘어, 하나님과 맺은 거룩한 약속을 지키려는 영적인 결단이었습니다.

### 본론 2: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본문 18절은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백 중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 침례교회를 지탱해온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풀무불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지만, 혹여 내 생명이 여기서 끝날지라도 내 신앙의 지조는 굽힐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실제로 1944년 우리 교단이 해산될 때, 많은 이들이 "이제 침례교는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선배들은 교단이 없어지는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장의 평안을 위해 진리를 팔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았던 그 신실함이 오늘날 우리를 있게 한 뿌리입니다.

### 본론 3: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할 영적 절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는 물리적인 신사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묘하게 변장한 수많은 현대 판 이상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물질주의, 세속적인 성공, 그리고 복음의 절대성을 희석시키려는 시대적 도전들이 우리에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라”고 속삭입니다. 이번 기념주일을 통해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오늘 무엇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가?” 선배들이 지켜낸 것은 단순히 교단의 명칭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식어버린 영적 야성을 깨워야 합니다. 세상의 거센 물결 속에서도 휩쓸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삶의 태도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할 신사참배 거부 정신입니다.

### 결론

우리 침례교회의 역사는 고난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승리의 역사입니다. 선배들이 흘린 피와 눈물이 거름이 되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어떤 위협과 유혹 앞에서도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과 맺은 신앙의 절개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 설교예시자료 ② ]

제목 :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교회

본문 : 사도행전 5장 29절

### 서론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교단의 자랑스러운 신앙 유산을 되새기는 '항일운동 및 신사참배거부 교단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침례교회는 역사적으로 국가 권력이 신앙의 영역을 침범할 때마다 결연히 맞서 싸워온 전통이 있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말기, 모든 종교 단체가 일본 천황 숭배에 동참할 때 끝까지 거부하며 신앙의 양심을 지킨 교단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결국 1944년 5월 10일, 일제는 우리 교단을 강제로 해산시키고 지도자들을 투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둘 수 있어도 그들의 신앙은 가둘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들의 고백이 바로 그들의 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침례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 본론 1: 권력 위에 계신 하나님의 권위

본문의 상황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잡혀온 장면입니다. 종교 권력자들은 그들에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히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당당히 대답합니다. 사람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침례교의 핵심 가치 중 하나는 '영혼의 자유'입니다. 인간의 어떤 제도나 권력도 개인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간섭할 수 없다는 믿음입니다. 우리 선배들은 일제가 강요한 신사참배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에 도전하는 우상 숭배임을 간파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법보다 '하늘의 법'을 먼저 따랐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기보다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했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순종이 우리 교단을 가장 정결한 공동체로 보존하게 한 힘이었습니다.

### 본론 2: 신앙의 양심을 위한 고난의 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고백 뒤에는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가 따릅니다. 사도들은 채찍에 맞고 능욕을 당했습니다. 우리 선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한 결과로 교단은 이름조차 사라졌고, 목회자들은 감옥에서 모진 고문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침례교인들은 역사적으로 편안한 길보다 옳은 길을 택해왔습니다. 다수가 가는 길보다 진리의 길을 걸었습니다. 교단 해산이라는 극한 상황에서도 신앙의 양심을 팔지 않았던 그 기개가 오늘날 우리 침례교회의 자부심이 되어야 합니다.

### 본론 3: 오늘날 우리가 응답해야 할 사명

오늘날 사탄은 우리에게 총칼을 들이대며 신사참배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부드럽고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너만 유별나게 구느냐?”며 타협을 요구합니다. 진리보다는 효율을, 순종보다는 편리함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이때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선포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일터와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급변하는 시대적 도전 앞에서 서 있는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영적 동력은 바로 ‘절대 순종’입니다.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로 서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시대적 사명입니다.

### 결론

우리 침례교회는 ‘순종의 대가’를 치르며 세워진 교회입니다. 선배들이 목숨으로 지켜낸 이 신앙의 유산을 헛되게 하지 맙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리 앞에 정직하며, 사람보다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는 용기를 가집시다. 우리가 그렇게 응답할 때, 우리 교단은 미래를 향해 더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순종의 행렬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 설교예시자료 ③ ]

제목 :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이를 두려워하라

본문 : 마태복음 10장 28절

### 서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침례교회가 역사 속에 새겨진 고난과 승리를 기억하는 '항일운동 및 신사참배 거부 교단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교단은 1944년 5월 10일,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끝까지 항거하다가 교단이 강제 해산당하는 유례없는 진통을 겪었습니다. 당시 일제는 총칼의 위협으로 우리 선배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몸을 억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주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어받아야 할 침례교의 신앙 유산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 본론 1: 두려움의 대상을 바로 알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일제강점기 당시에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면 투옥과 고문, 그리고 죽음이라는 실질적인 공포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생명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을 바로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 빼앗을 수 있는 것은 고작 잠시 머무는 이 땅의 생명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선배들은 이 진리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위협보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더 두려워했기에, 그들은 세상 권력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만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 낼 수 있습니다.

### 본론 2: 1944년, 침례교회가 치른 순종의 대가

우리 침례교회의 역사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치렀던 값진 희생의 기록입니다. 1940년대 초, 많은 종교 단체가 생존을 위해 일제와 타협하며 신사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배들은 끝내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 1944년, 일제는 우리 교단의 간판을 내리게 하고 모든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지도자들은 감옥에서 모진 고초를 겪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교단 해산은 실패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것은 가장 찬란한 승리였습니다. 몸은 묶였으나 영혼은 자유로웠고, 교단의 이름은 사라졌으나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는 그들의 이름이 더욱 선명하게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는 이 말씀이 삶의 고백이 되었을 때, 우리 교단은 한국 기독교 역사에 가장 순결한 증거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

### 본론 3: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의 무게

오늘날 우리는 몸을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핍박의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위협은 과거보다 더 교묘합니다. 세상은 이제 우리를 죽이려 하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여 영적으로 잠들게 만들려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의 평판을 더 신경 쓰게 만들고, 영원한 생명보다 이 땅에서의 안락함을 더 소중히 여기게 만듭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선배들이 지켰던 그 영적 동력이 내 안에도 살아있는가? 이번 기념주일을 맞이하며,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가장 높이고 경외하는 신앙을 회복합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선배들로부터 물려받은 가장 고귀한 유산입니다.

### 결론

우리 침례교회는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고 사랑했던 이들의 헌신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번 주간,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겠다"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 침례교회가 더욱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 항일운동 및 신사참배거부 교단기념 주일

[참고자료]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  
THE KOREA BAPTIST CONVENTION

## 동아기독교(침례교)의 주요 항거 및 수난

### ■ 단계별 저항의 역사

- **포교규칙 제출 거부 (1915~1920) :**  
일제가 교회를 통제하기 위해 만든 법안에 대해 "하나님교회 일을 세상 정부에 보고할 수 없다"며 거부하였고, 이로 인해 지도자 구속과 예배당 폐쇄를 겪었습니다.
- **일제 교육 및 신사참배 금지령 (1924~1935) :**  
펜워 선교사는 일제의 황민화 교육이 신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신자 자녀들의 학교 취학을 금지하고 성경 교육에 매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 **'달편지' 사건 (1935~1936) :**  
김영관 감목은 전국 151개 교회에 "황궁요배와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이므로 결코 할 수 없다"는 시달문을 발송했습니다. 이 문서가 일제에 발각되면서 핵심 지도자들이 투옥되었습니다.
- **원산 총부 수색 및 성경 소각 (1942) :**  
일제 헌병대는 침례교 총부를 급습하여 성경 6,500권과 교단 중요 서류를 압수하여 소각함으로써 침례교의 역사적 사료를 말살하려 했습니다.

### ■ 교단 지도자 32인의 투옥과 순교

- **32인의 구속 :**  
1942년, 이종근 감목을 비롯하여 전국의 목사, 감로 등 교단 지도자 32명이 한꺼번에 체포되어 원산 헌병대와 함흥 형무소에서 혹독한 고문과 취조를 받았습니다.
- **전치규 목사의 순교 (1944.2.13) :**  
제3대 감목 전치규 목사는 1년 8개월간의 옥고와 잔인한 고문 끝에 함흥 형무소에서 57세의 일기로 순교하셨습니다.  
이는 개인의 저항을 넘어 교단 전체를 대표하는 순교였습니다.

### ■ 교단 해체 판결 (1944.5.10)

일제는 동아기독교가 천황을 부정하고 '만왕의 왕 예수'가 재림하여 심판한다는 불온사상을 전파한다는 이유로 교단 해체령을 내렸습니다. 전국의 교회는 폐쇄되고 재산은 몰수당했으며, 선교 거점이었던 **강경 옥녀봉 교회** 건물은 방화로 소각되었습니다.

## 역사적 평가와 자랑스러운 유산

### ■ 침례교 저항의 독보적 특징

타 교단들이 일제의 강압에 못 이겨 총회 결의를 통해 신사참배를 '국민의례'로 수용하고 굴복할 때, 침례교는 전 교단적으로 단 한 명의 이탈자나 친일 협력자 없이 끝까지 항거했습니다.

이는 한국 기독교사에서 매우 이례적이고 영광스러운 기록입니다.

### ■ "신사참배 거부는 곧 항일 독립운동이다"

- **국체(천황제)에 대한 도전** : 일제에게 신사참배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닌 '황국신민'임을 증명하는 통치 수단이었습니다. 이를 거부한 것은 일제의 통치 이념을 정면으로 부정한 정치적 행위이자 민족 운동이었습니다.
- **치안유지법 위반** : 일제가 침례교 지도자들에게 적용한 '치안유지법'은 당시 독립운동가들에게 적용되던 법안으로, 침례교의 신앙 운동이 국가적 차원의 독립 투쟁으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줍니다.
- **민족혼의 사수** : 우리 말과 이름, 조상의 얼을 말살하려던 황국신민화 정책에 맞서 신앙을 지킨 것은 곧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지킨 애국 행위였습니다.

### ■ 현대적 고찰과 우리의 과제

- **기억의 복원** : 그동안 장로교의 주기철 목사 등에 비해 침례교의 단체 저항 역사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습니다. 이제는 전치규 목사와 32인 지도자의 이름을 복원하고 국가적 차원의 독립유공자 서훈을 추진하는 등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 **신앙의 야성 회복** : 신앙과 삶,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았던 선조들의 '통합적 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순교는 단순히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선포하는 최고의 '윤리적 행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 ■ 결론

침례교회의 신사참배 거부 역사는 한국 교회가 일제 강점기라는 암흑기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피워낸 신앙의 꽃입니다. 이 자랑스러운 유산을 계승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와 목회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신앙 선조들의 정신 계승을 위한 결의문]

- 80년 전의 순결한 저항, 오늘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

우리는 오늘, 일제의 서슬 퍼런 칼날 앞에서도 오직 주님만이 '만왕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교단 해체의 고난을 택했던 동아기독교(침례교) 선조들의 거룩한 발자취를 기억합니다. 그분들이 흘린 피와 눈물 위에 세워진 우리 침례교회의 정통성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오늘 우리는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하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삶의 주관자로 모시는 '순결한 신앙'을 계승하겠습니다.**

80년 전 선조들이 신사참배라는 우상숭배에 무릎 꿇지 않고 '달편지'를 통해 신앙의 절개를 지켰듯이, 우리도 세상의 유혹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 삶의 절대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고난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순교의 야성'을 회복하겠습니다.**

함흥 형무소의 차가운 바닥에서 고문과 굶주림을 견디며 순교하신 전치규 목사님과 32인 지도자들의 용기를 기억합니다. 우리도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어떤 위기 앞에서도 신앙의 양심을 팔지 않는 강인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세상 권력보다 크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정의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선조들의 신사참배 거부가 단순한 종교 행위를 넘어 일제의 불의한 통치에 맞선 거룩한 저항이었음을 믿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흐르도록 힘쓰며, 소외된 이웃을 사랑하고 시대의 어둠에 빛을 비추는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자랑스러운 침례교의 역사를 잊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하신 말씀대로, 교단 해체의 아픔을 영광의 역사로 가르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침례교인으로서의 자부심을 품고, 어디서든 당당하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로 양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짐이 단순한 외침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0년 전 선조들과 함께하셨던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와도 함께하시어, 다시 한번 침례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2026년 5월 10일  
기독교한국침례회 성도 일동